

광산구에 청년주택 30호 짓는다

광산구, 광주도시공사 등과 협업
월곡119센터 옆 4층 규모 신축
청년주거독립실 11월 준공 예정

광주 광산구가 관내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사회혁신플랫폼 등과 함께 '청년주택'을 마련한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7기 김삼호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교육 및 구직, 직업훈련 등을 포기한 채 은둔 상태에 있는 니트(neet) 청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먼저 청년의 공동 주거공간으로 '청년주거독립실'을 마련해 니트 청년에게 제공하고 자존감 회복 등 일할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 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 연대해 월곡119센터 옆 부지에 4층 규모의 청년주택 30호를 신축하기로 했으며,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사유지 매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청년주거독립실' 추진 사업은 광산구가 지난해 2월 니트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광주도시공사에 사업 참여를 제안한 끝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이 뜻을 함께하기로 했으며, 공동생활 작업장 및 독립 세아하우스 등을 연결하는 사업 청사진도 마련됐다. 광산구는 해당 청사진에 따라 먼저 광주도시공사가 청년들의 공동생활 공간을 신축하기로 협의했다.

광산구는 또 민간 TF팀을 구성해 완공된 '청년주거독립실'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은 사업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결하기로 했다.

이번 공감대를 기반으로 세 기관은 지난해 11월 말 청년주거독립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



김삼호(가운데) 광주 광산구청장은 최근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도시공사, 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 '청년주거 독립 지원 업무 협약식'을 했다. <광산구 제공>

다.

해당 협약에 따라 오는 3월 공사를 착공한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청년주거독립실'에는 개인 주거 공간 30호를 비롯해 공유공간인 청년작업장, 쉼터,회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청년주거독립실'이 완공되면 그동안 부모에게 의존했던 니트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게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인문사회포럼'에서 2017년 기준 한국사회 15~29세 니트 청년 비율이 18.4%이고 2020년에는 청년 10명 중 1명이 니트 청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광산구는 이번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관내 니트 청년들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 헬스클럽 등 민간 체육시설 10개소와 '우리동네 청년-체력장 사업'을 추진해 100여명의 청년들이 감염병 사태로 움츠러든 몸을 관리하도록 도왔다.

이 밖에도 동네카페를 청년 공간으로 제공하는 '우리동네-청년라운지' 사업을 추진해 84명의 청년이 25개 모임에 가입토록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사)청년문화허브와 추진한 말 못할 고민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청년이 손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면 상호 답장을 주고 받으면서 활력을 전하는 공공문화예술 프로젝트인 '사막여우 비밀우체국'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 '사막여우 우체통' 광산구점은 1913송정역시장에 설치돼있다. 광산구는 다양하게 진행된 사업에 참가한 청년 27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여 청년 23.2%가 니트화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는 2020년 추진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청년 사업도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특히 '제1기 광산구 청년정책위원회' 출범을 돕고, 청년 스스로 광산구의 청년정책을 설계·실행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직 신입사원 첫 공채

생산·생산 품질분야 186명
원서 20일 오후 4시까지 접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기술직(생산직) 신입사원을 처음으로 공개 채용한다.

6일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생산, 생산 품질 분야 기술직 신입사원 186명이다. 경력이 아닌 신입 사원 모집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서는 이

날부터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채용 전문업체인 마이디자인을 통해 접수한다.

인공지능(AI) 역량 검사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전문기관 업무 대행, 국가직무 능력표준(NSC)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전용 홈페이지(<https://ggm.recruiter.co.kr>) 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 광주시장 표창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20년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해 산하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고객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그동안 민선 7기 광주시장 목표에 맞춰 안

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 과제 발굴·추진, 기관 경영과 사업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올해도 코로나 19 극복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산안심식당 서약업소'를 선정한 뒤 식당입구에 인증서를 붙이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 '코로나19 안심식당' 농림부장관상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선정 ... 식문화 개선 2관왕

광주 광산구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안심식당 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안심식당 지정·홍보·예산집행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의 지난해 사업을 평가했으며, 광산구는 97점을 받아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광산구가 추진한 식문화 개선 정책 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산안심식당 서약업소' 제도를 실시했다. 음식점 영업주가 5가지 감염병 예방 활동인 ▲매일 소독 ▲마스크 착용 ▲개인접시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손소독제 비치 등을 먼저 서약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산안심식당 서약업소는 230여곳에 이른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공직자들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 높이겠다"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 취임



이돈국(사진) 신임 광산구 부구청장이 지난 4일 광산구청에서 온라인 사무식 및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부구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혁신의 아이콘인 광산구에서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서 민선 7기 광산구가 빛나는 금자탑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또 "광산구 공직자들이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구청장은 꼼꼼한 업무처리와 빼어난 조직관리 능력, 온화하고 세심한 성품으로 공직사회 안팎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1991년 광주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29년 동안 광주시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총무과 인사담당, 기획조정실 수명대회지원단장, 총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정시책 활동평가 업무 추진 유공 장관 표창, 직무장려 및 국가사회발전기여 국무총리표창 등 다수의 상도 수상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설 또는 장치 불량 차량도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나해전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